

가회동 11-66한옥과 비슷한 형태의 트ㄱ자형 한옥이었으나, 가회동과 계동을 잇는 새길이 뚫리면서 ㄱ자형 안채만 남아 있다. 대지 서쪽에 난 골목길 계단을 통해 진입하는데, 길과 대지의 레벨차이가 크다 주변은 다세대 주택으로 개발되었다. 대지의 남동쪽 모서리에 장독대가 놓여있다.



대지면적: 21평

건축면적: 12평

실 측: 김영수, 성태원, 문정기
(2001.8.21)



SCALE 1/400